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세계수영선수권 예산 되살려라

##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가동...광주·전남 현안사업 통과될까

새해 예산안 386조 원 규모를 최종 심사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위)가 가동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이 소위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광주시가 국회 예산특위 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353억원)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예산(46억원) 등이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도 다음주 초께 나올 예정임에 따라 더욱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광주시당까지 적극 나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는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고을산단 설계비 353억원의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광주의 취약한 산업토대를 다져 자생력을 키우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이번 소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또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예산은 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예산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대회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논란에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데

### 새누리 광주시당 등 반영 촉구

### 무안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등

### 전남도 미반영 SOC 부활 총력

다 대회가 오는 2019년인 만큼 다음해부터 국비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는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진로직업체력센터 건립(10억원) ▲고령동물 생육시설 환경개선사업(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24억원)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7억원) 등의 예산이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 예산이 얼마나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부활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원(18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400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2016년 요구액 22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200억원) 등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 설득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해안 철도 부설 사업(전남 목포~보성) 등 SOC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근에는 경북도와 공조하기로 하는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SOC예산이 국회 소위에서 부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김재경(왼쪽)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오른쪽) 의원,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최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지각출범 예결위 예산소위...위원 순번제 '변칙운용'

### 위원 15명으로...30일까지 심의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활동을 개시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정결을 거부한데 이어 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문제 등으로 당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가 일주일 늦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막판에 합류한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고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민,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이 소위에 참여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소위가) 가동되도록 내가 우선 양보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성호 의원이 빠지고 7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박법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의 의원이 소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상임위원회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는 '순번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이날부터 시작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도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총선 앞둔 대구서 '광주 문화전당' 논란

### 이재만 "유승민 독단으로 세금 5조 투입"

<前 구청장>

### 지역감정 조장 허위 발언 유승민 "법적 대응하겠다"

대구에 한 총선 출마희망자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왜곡된 정치적 발언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5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유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유승민)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이러한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곧바로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쓴다"며 "이 전 청장의 출마선언문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정식 명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아문법)은 2006년 8월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2006년 법 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돼 있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15일 대구 '야망기차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제가 원내대표 재임시절이던 2015년 3월3일에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 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안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며 "또한 지난 3월의 아문법 개정은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의)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북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3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테플러이여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

**(월) 799,000원에 관다!**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779,000원

벳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499,000원 ~ 76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